

율법주의적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복음의 체질로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이사야 7:14, 마태복음 28:18-20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홀로 계시고 또 영세 전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두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불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몸부림치는 어떤 사람은 종교, 철학, 과학, 선행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 길이 없었고 실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여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굳게 붙잡고 전 세계 237나라에 RUTC를 세워서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교단,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답이 되게 하시며 길, 진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시대부터 초대교회시대까지의 유대인의 역사에서 항상 일어나는 문제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였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제들을 아주 지혜롭고 복음적일 뿐 아니라 고도의 논리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박한 복음서가 세리출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이다. 마태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죄인인 세리출신이며 부자였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결국 주님이 부를 때 바로 따라갔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의 절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반박하고 있고 절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도전해야 할 미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미션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합숙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완전복음의 내용이다.

1.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된

내용들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옛 틀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율무와 함정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유대주의 때문이다. 유대주의란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구원관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줄도 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으로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지만 선민의식과 국수주의에 빠지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 잘못된 민족주의와 전통관습과 문화는 결국 원니스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2) 율법주의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몰랐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도 모든 종교와 이단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신천지도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모두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없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 것처럼 지나친 주장과 아집에 빠져 오히려 전도를 막고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는 불완전하고 오직복음, 완전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참된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3)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인본주의 때문이다. 그들의 인본주의를 알아보면 아주 다양한 종류와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보다 로마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강대국인 로마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살았다. 힘이 강한 헤롯과 같은 사람들의 눈 밖에 나기 않기 위해 서기관과 비리세인들은 헤롯과 타협하였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세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권력에 붙어 있어야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 직장과 자리, 월급, 돈 때문이다. 즉,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며,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왜 사단에게 속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시대적인 메시지와 강단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체의 메시지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상태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창

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사탄의 옛 틀에서 그리스도 새 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다음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내용을 다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두 번째에서는 마태복음에 담겨져 있는 완전복음에 대한 중요한 요절말씀들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기로 하겠다. 이 말씀들을 암송하고 적용한다면 사탄의 옛 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절대제자들의 절대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포기하면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예수님은 완전복음의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다.

(2) 완전복음의 사람은 선행을 할 때도 겸손하게 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뛰어넘어 완전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다음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구원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요절말씀이다. 하반절의 말씀만 보겠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활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3) 다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앞뒤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하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예레미야(박애주의자), 엘리야(신비주의자), 세례 요한(사회개혁가), 선지자(종교인)중의 한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베드로의 대답은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죄, 사탄, 근본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였다.

(4) 완전복음의 사람들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또한 완전복음을 모델 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있다. 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 장면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종, 겸손, 사랑, 용서, 희생 등을 보여주고 계시다.

(5) 마지막으로 완전복음이 체질화된 성도들의 절대 목표는 마태복

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소명화) 가서(현장화) 모든 민족(선교화)을 제자로 삼아(제자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교회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복음과 율법의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전도화, 합숙, 전도자의 삶)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임마누엘과 마리아나) 하시니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너희는'(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천명, 사명, 소명이다. '가서'는 현장화하라는 것이다. '모든 민족을' 237선교이다. '제자로 삼아'는 제자화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교회화를 의미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전도화와 전도자의 삶을 의미한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with, immanuel, oneness, 마리아나의 축복을 의미한다. 즉, 이 두절의 말씀 속에는 완전복음화를 위한 절대목표와 컨텐츠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 이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붙잡을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이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언약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237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완전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24시간 도전해야 하겠다. 마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잘못된 컨텐츠를 복음의 컨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하여 작품을 남긴 전도자였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율법주의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완전복음이 체질화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보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응답이 생생하게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위해 내가 할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을 해보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컨셉과 컨텐츠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믿음, 가정, 기문과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